

휴거와 재림의 확실한 징조들 분별하기: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그리고 이슬람
성경말씀: 계11:1-2

지난 3주에 걸쳐서 휴거에 대한 설교, 1. 휴거가 발생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2. 휴거 받지 못한 사람들의 최종 운명, 3. 휴거를 이해하기 위해 요한 계시록 설명, 이미 말씀드렸듯이 우연히 4주 전에 레프트 비하인드 영화 감상, 너무 리얼하게 다가왔다.

(*) 안 본 사람들은 유튜브에서 꼭 보기 바란다. 아이들, 불신 가족들과 함께 목사의 사명: 성벽에 서서 멀리 내다보고 명확하게 경고 싸인을 보내는 파수꾼
지난 13년 동안 2500번 설교, 강해, 하나님의 모든 계획 선포, 이 중 100여 시간에 걸쳐 재림과 휴거를 설명하였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확실하게 설명할 필요, 사람에게 경고하고 복음의 메시지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기에 이 일을 하고 있다.

지난주에 이야기했듯이 왜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휴거나 재림 이야기가 거의 없는가?

물론 다미 선교회 파동도 있다.

그러나 한국 교회에 편만한 이스라엘 대체 신학, 천주교 무천년주의, 개신교 칼빈, 루터, 웨슬리 등 답습, 그 결과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지 않으니 다 영해하고 만다.

요즘 보수 장로교에서 오신 자매님, 이전 교회 다닐 때 담임 목사와 설교 목사가 자칭 타칭 계시록의 대가, 그런데 휴거는 한 마디도 안 한다. 교회에서도 거의 금기, 계시록의 대가가 재림 휴거 이야기하는 것을 타부시한다. 이상하지 않은가? 다 영해한다. 무천년 해석, 네로가 적그리스도 등 이런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읽어야 한다.

미래 일들(*), 계시록 구조(*), 이렇게 들어올 수밖에 없다. 아니면 사적인 해석

나에 대한 비방의 글: 세상이 시끄럽다 보니 휴거를 가지고 사람들을 모으는 사람이 있다. 즉 내가 휴거팔이 하고 있다. 참으로 어리석은 목사들, 왜 본인은 한 마디도 안 하는가? 칼빈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것이 무너져야 성경을 바로 볼 수 있다, 아마 칼빈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위기를 느낀 것으로 보인다.

재림 해석에 관한 한 칼빈주의가 무너져야 예수님이 살고 성경이 살고 그리스도인들이 산다.

오랜만에 지난주 맥아더 목사, 장로교 개혁주의 목사, (*) 요즘 맥아더도 재림 설교(8월 17일), Rapture: Only 60% of Christians believe this... 미국 복음주의자들의 겨우 60%가 휴거를 믿고 있다. 맥아더도 철저한 칼빈주의자, 그러나 휴거와 재림에 관한 한 칼빈을 안 믿고 성경대로 우리와 동일하게 가르친다.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

즉 우리는 누가 무어라 해도 성경대로 믿는 성경 신자, 무천년주의, wrong, 칼빈 루터의 재림 해석 wrong,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성경에 어긋난 말을 하면 버려야 한다.

맥아더의 말: 이 무서운 세상의 희생물이 되지 않으려면 확신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구원, 환난 전 휴거와 몸의 부활과 재림, 천국

오늘 중고등학교 대학교 학생들에게 부탁한다: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휴대폰만 가지고 놀면서 왜 인생을 사는지도 모르고 시간을 허비하면 평평 우는 날이 온다. 확신을 가져야 한다: 부지런히 열심히 이하고 공부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야기한 대로 2-3번 더 휴거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오늘은 < > 성경에 나와 있는 휴거와 재림의 명백한 징조들,

마16:1-3

우리는 날짜를 세지 않는다. 경멸한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처럼 세상의 징조들은 살펴보고 더욱 더 거룩히 살려고 노력한다.

왜 휴거와 재림이 중요한가?

부정 선거, 좌경화, 사회주의 독재, 다음 세대 아이들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진다. 그런데 이런 악한 세상이 끝이 아니다. 다음 세상 영원한 세상이 우리 앞에 있다.

어떻게 아는가? 성경이 말한다.

특별히 우리는 휴거 받을 가능성이 큰 세대에 살고 있다. 어느 면에서 우리의 전성기

그래서 지금의 어려운 세상을 살면서 휴거와 재림의 소망을 놓으면 안 된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이 우리를 들어 올린다. 나도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 휴거의 핵심: 공중으로 채여 올라가는 것이다. 교회 포스터 퍼haps 투데이

그 일이 오늘 발생할 수도 있다.

신약성경 예수님의 말씀 중 가장 많은 것, 내가 다시 온다. 지옥을 두려워하라.

목사는 여러분의 기억을 일깨워주어야 한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 여기를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으려고

벧전3:15, 왜 우리는 재림을 믿는가? 날짜는 세지 않지만 세상의 변화와 징조는 믿고 있다.

그래서 소망의 이유를 알려주어야 한다.

오늘은 성도들의 휴거와 예수님의 지상 강림이 가까이 왔음을 보여 주는 몇 가지 중요한 징조를 설명하려 한다. 알면 평안하다. 알고 믿고 전하기 바란다.

매일 휴거 휴거 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한다.

휴거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 구원받으면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

우리는 매일 매일 믿음의 삶을 살면 된다.

1. 이스라엘

(*) 이스라엘은 가장 확실한 휴거와 재림의 표적이다.

1948년 5월 이스라엘 국가 형성,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였다.

하나님의 계획(사66:8-10; 겔37:11-12)

(*)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 터 확보하지 못함, 1967년 6일 전쟁 성전 터 확보

54년이 지났다, 이제는 성전을 지을 수 있다. 재림이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 성전 재단(Temple institute), 구약 시대 성전 예배 기구 99% 예비 심지어 붉은 송아지도 유전자 검사를 통해 확보

살후2를 보면 적그리스도가 반드시 성전에 들어가야 한다(살후2:3-4). 조금 있다가 자세히 지금 그 일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다.

2. 예루살렘

마24, 눅21장은 재림의 때에 대해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들이다.

(*) 마24:1-2,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서 가실 때에 그분의 제자들이 성전의 건물들을 보여 드리려고 그분께 나아오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아니하느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의 멸망

제자들 질문: 3절, 그분께서 올리브 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은밀히 그분께 나아와 이르되,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있으리이까? 또 주께서 오시는 때의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이리이까? 하니

1.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있으리이까? 2. 또 주께서 오시는 때의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이리이까? 둘 다 같은 때에 이루어진다.

예수님의 설명, 속이는 자들의 등장, 자칭 그리스도들의 등자, 전쟁, 기근, 지진, 역병, 거짓 대언자, 불법의 성행(4-12)

눅21장도 비슷하다. 그런데 재림 때 눅21은 예루살렘의 상황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

(*) 눅21:20-21,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것의 황폐함이 가까이 이른 줄 알라. 산들로 도망가라. 도시로 들어가지 말라.

여기서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다. 거의 대다수 개신교 신학자, 목사들

이들의 주장: AD 70년, 로마 장군 티투스의 예루살렘 멸절, 이것으로 예언은 이미 성취되었다.

이들의 주장도 얼핏 들으면 맞는 것 같다.

그러나 지금 주님은 AD 70년 상황을 말하지 않는다.

그 뒤를 보라.

(*) 21:22, 기록된 모든 것이 성취되는 날, 하나님의 원수 갚는 날, 22절 이후가 아직 성취되지 않은 즉 예루살렘과 관련된 모든 것이 성취되어야 한다. AD 70년에는 일부가 성취되었다.

그 이후 십자군 전쟁, 오스만투르크의 예루살렘 점령, 그러나 일부만 성취됨

21:23, 유대인들 핍박, 큰 고난

(*) 1. 마24:21, 그때에 큰 환난이 있으리니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난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2. 단12:1 그때에 네 백성의 자손들을 위하여 일어서는 큰 통치자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그것은 민족이 있는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고난일 것이며 그때에 네 백성이 구출을 받되 책에서 발견된바 기록된 모든 자가 구출을 받으리라.

(*) 3. 렘30:7 아아, 슬프도다! 그 날이 커서 그것과 비길 날이 없나니 그 날은 곧 야곱의 고난의 때로다. 그러나 그가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AD 70년, 로마의 침입, 143일 동안 포위, 110만 명 살해, 10만 명 포로

2차 세계대전 600만 명, 그보다 더 많이 죽어야 한다.

(*) 속13:8-9, {주}가 말하노라. 그 온 땅에서 그 안의 삼분의 이는 끊어져 죽을 것이요, 오직 삼분의 일만 그 안에 남으리라. 내가 그 삼분의 일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고 은을 정제하듯 그들을 정제하며 금을 단련하듯 단련하리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며 또 말하기를, 그것은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리라.

그 땅의 삼분의 이가 죽어야 한다. 삼분의 일 불로 정화되는 고통
이런 일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

21:24, 모든 민족들에게 붙잡혀가고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힌다.

이 일이 있어야 예수님의 재림, 물론 우리는 그 일 이전 7년 전에 휴거

21:25-26, 일월성신의 변화, 그리고 27절: 주님의 재림

그러므로 AD 70년에 눅21:20-21절 성취, 결코 맞지 않는 날이다.

이런 쓸데없는 말로 성도들을 현혹하면 안 된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이 마지막 때 즉 휴거와 재림의 징조임을 누구나 알 수 있다.

재림의 때는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다. 이때에 모든 것이 성취된다.

계시록 11장

(*) 11:1-2, 또 내가 막대기 같은 갈대를 받으며 그 천사가 서서 이르기를,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2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내버려 두고 측량하지 말라.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셨은즉 그들이 그 거룩한 도시를 마흔두 달 동안 발로 짓밟으리라

(*) 다니엘의 70번째 한 이레, 적그리스도와의 평화 협정, 성전 건축 명령

다니엘의 70이레, 후반부 3년 반(42달), 이스라엘의 엄청난 고통

이때의 특징: 1. 하나님의 성전, 2.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3년 반 동안 짓밟는다.

이런 일이 있었는가?

하나님의 성전: 6일 전쟁 이후 성전 터 확보, (*) 유대인들의 열심, 모든 것 준비하고 성전을 지으려 함, 명령만 떨어지면 순식간에 지을 수 있다.

살후2장 전체: 명백히 재림 구절, 2절: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 3절: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야 한다.

그가 하는 일: (*) 4절, 그는 대적하는 자요, 또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 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간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다.

성경에 나오는 성전은 세 가지:

- 1. 실제 유대 땅에 있는 성전, 2. 신약시대 성도들, 3. 하늘에 성전, 2, 3은 아니므로 당연히 여기 성전은 유대 땅에 있는 성전

바로 이때가 적그리스도가 언약을 파기하고 성전에 들어가 자기를 섬기라고 하는 때

(*) 마24:15, 그런즉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단9:27,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이레 동안 언약을 확정하리니 그가 그 이레의 한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며 또 가증한 것들로 뒤덮기 위하여 심지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것을 황폐하게 할 것이요, 작정된 그것이 그 황폐한 곳에 쏟아지리라, 하니라.

(*) 이방인들의 때: 말 그대로 이방인들이 득세하여 특별히 이스라엘을 짓누르는 때 이때는 느부갓네살 시대(BC 606)부터 이루어져서 7년 환난기 끝까지 간다.

(*) 아마겔돈 전쟁, 유대인들 건디지 못하고 두 손 들고 주님을 맞이한다.

(*) 마23:37-39, 39절,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네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마 23:38) 보라, 너희 집이 버림받아 너희에게 황폐하게 되었느니라.

(마 23:39)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말하기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이제부터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휴거와 재림과 관련해서 우리는 늘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주시해야 한다.

날짜를 세라는 말이 아니다.

이란(곡과 마곡)

예수님 재림 전에 극도로 이스라엘을 괴롭힐 국가 혹은 주도하는 국가들이 나타나야 한다.

다니엘서 10장을 보면 다니엘의 기도를 방해하며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대적할 국가가 명시되어 있다.

그것은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 이란 뒤에 있는 악한 영이 있다. 그 영이 바로 마귀

아무도 이란이 이렇게 되리라고 예상하지 못하였다. 1979년 이란의 호메이니 등장, 신정 국가 회귀 현 시대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가장 큰 세력, 핵무기 위협

(*) 에스겔서 38-39장의 곡과마곡의 전쟁의 중심 세력: 러시아와 함께 연일 지금 보도되는 전 세계 뉴스를 보라. 이란 그리고 이스라엘 뉴스이다.

(*) 이번의 아프가니스탄 사태, 결국 극단적인 이슬람 세력

유럽은 이슬람 난민들에 의해 초토화되었다. 이번에 200만 명 또 유입

7년 환난기 적그리스도의 친위대: 이슬람, 극도로 유대인과 기독교인 증오함

이 기간에 수많은 환난기 성도들이 죽임을 당한다.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6:9; 7:9, 14) 이들이 어떻게 죽임을 당하는가?(20:4)

(*) 목을 베어 사람을 죽이는 자들: 이슬람

성경이 보여 주는 데도 깨닫지 못하면 어린 석은 자이다.

국내에 이슬람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

국회의원들이 정신 차리도록 글을 써야 한다.

다른 징조들

- 1. 노아의 시대: 호전적인 동성애 시대

임박한 재림의 가장 큰 이유: 호전적인 동성애의 급속한 확산, 마24:36-39, 눅17:28-29

- 2. 기술의 발전, AI, IT, 인간 통제

- 3. 교회의 배도

교회가 교회가 아닌 곳들이 너무 많다.

마지막 시대 적그리스도는 표적과 기적들로 수많은 사람을 속인다(살후2:7-10).
여기에 넘어갈 자들을 미리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과격한 오순절 은사주의, 신사도 운동
교리 무시, 심지어 교회 안에 공산주의 사회주의 팽배
대표적인 사례: 로마 천주교, 해방 신학, 민중 신학

4. 재림의 멸시: 릭 워렌 등, 재림이 다가올수록 더 관심이 없다.

마지막 가장 큰 징조: 재림에 관심이 없고 오히려 재림을 믿는 자들을 멸시한다(벧후3:3-4).

릭 워렌, 로버트 솔러 등의 가짜 목사들이 나타나 재림 신앙 무시 멸시

지금 나가서 휴거는 믿는다고 하면 멸시와 조롱

더욱이 예수님이 실제로 예루살렘의 올리브 산으로 내려와 1000년 동안 다스리신다고 하면 멸시
조롱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로

재림은 확실하다

(*) 계1:3의 복

계22:20, 내가 반드시 속히 너희에게 간다. (*) 그림

우리의 반응: 20절 후반부

주님의 약속: 21

이 땅에서 힘들게 투쟁하고 있다. 해야 한다. 어려움이 있다. 해야 한다.

그러나 잊지 말자.

가장 큰 징조: 이스라엘, (*) 예루살렘, 이슬람

시122:6, 예루살렘의 화평(평화)을 위하여 기도하라.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형통하리로다.』

속히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 휴거받아 영원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딸로 사는 우리가 되자.

샬롬